

전남 시·군 손잡고 해상교량 건설... '상생 발전' 모범사례

4개 시·군과 사업비 분담 협력
사업비 약 5280억 투입 예정
수품항 물김 운송난 해소 기대



전남 신안군 하의도~신의도를 잇는 국도 2호선 해상교량 '삼도대교'. /뉴스1

전남의 섬과 섬이 사업비 분담을 통한 속도감 있는 해상교량 건설 사업을 통해 거점 성장동력으로 가치를 더하게 됐다.

전남도는 섬 주민의 숙원사업이던 만장기간 미추진 상태로 있던 지방도 4곳의 해상교량 신설사업이 여수시·완도군·진도군·신안군 등 4개 시·군과 사업비 분담 협력을 통해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해상교량은 '신안 장산도~자라도', '완도 소안도~구도', '여수 월호도~금오도', '진도 의신면~접도'를 잇는 지방도 연도(連島)교량 4개소다. 총 사업비는 약 528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지방도 정비사업 해상교량 개

설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도로관리청인 전남도가 순수 도비 100%로 추진하면서 공기 연장 등 각종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 변경으로 해상교량 건설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전남도가 섬 주민의 숙원인 해상교량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4개 시·군과 협의를 거쳐 각각 소요사업비의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는 올해 지난 10년간 평균 투입 예산의 약 2배에 달하는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 해상교량 신설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전남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의 해상교량 건설은 도와 시·군 간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신안 장산~자라도' 간 연도교 사업의 경우 2019년 신안군의 적극적인 사업 건의를 통해 추진하게 됐다.

이 구간은 신안 다이아몬드제도 내 지방도 805호선 유일의 미개설 구간으로 사업비 1600억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한다. 향후 국도 2호선의 '도초~하의' 구간까지 개설되면 다이아몬드제도는 지난 2018년 개통된 천사대교를 통해 육상교통망과 모두 연결된다.

교량이 신설되면 수품항의 물김 운송난이 해소되고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사업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시는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은 만큼 전시컨벤션센터가 경제·사회·문화 발전의 거점공간이자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행정절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 건축설계공모 작품심사를 통해 설계용역 추진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포항시 북구 장성동 1287번지 일원(구.캠프리비)에 대규모 전시장과 2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남해산 수산물 베트남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식. /남해군

남해산 굴 등 수산물 베트남 수출길 오른다

대동수산-베트남 미그룹 업무협약
고급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 11곳 운영

남해군이 남해군청에서 대동수산 영어조합법인 및 베트남 미그룹(Mig Group)과 함께 굴 등 남해산 수산물 베트남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대동수산영어조합법인 김희정 대표는 베트남 미그룹 민 회장과 2023년에 200만 달러(약 24억 원) 어치의 남해산 굴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2023년 이후에도 수출을 이어갈 계획이다.

설천면 봉우에 있는 대동수산은 그동안 양질의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해외수출을 모색해오고 있는 업체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베트남 미 그룹은 2013년 설립됐으며 하노이와 호치민 등에서 최고급 대형 해산물 레스토랑 11 곳을 운영하고 있다. 종업원만 무려 1000명에 이른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양시, 하수도 분야 국비 68억 확보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추진

광양시 물관리센터 하수도과가 2023년도 하수도 분야 국비 68억 원을 확보했다.

해당 국비는 지난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서 신규사업 2건 및 계속사업 8건과 관련된 금액이며, 신규사업은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봉강·옥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다.

광양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광양읍 지역의 노후화된 우수관로 약 4km를 정비해 도로 침수와

침하 등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봉강·옥룡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봉강·옥룡·진상면 일원의 노후화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 8개소를 폐쇄하고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공사로, 하천 수질오염이 개선되고 하수 악취와 우수 역류 등의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김복덕 물관리센터소장은 "추진 중인 사업은 잘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민원 건의사항이 반영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전남)=김용학 기자 jijacecom@

전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전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특별점검'에 나선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김장재료로 사용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굴, 천일염 등 대표 수산물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한다.

전통시장, 유명 젓갈시장, 영업사 등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군,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전남=이대호 기자

창녕군

도로정비 종합평가 '우수기관'

창녕군은 경상남도가 진행한 '2022년 도로정비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주민통행이 잦은 구간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 도로상 무단 적치금지 안내 입간판 설치, 겨울철 블랙아이스 구간 염수 살포기 운영 등을 도로정비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군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8개 노선, 494.7km를 유지 및 관리했다.

/창녕(경남)=이도식 기자

목포시 시민 안전증대 위한 도로시설물 점검

재난사고 사전예방·대책마련

목포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 증대를 위해 도로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추진해가고 있다.

시는 교량·육교·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생활 위험요인과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보수·보강을 펼치는 한편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과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전문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도로시설물은 교량 44개소, 육교 11개소, 터널 3개소 등 63개소로 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매년 3종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 우선순위, 시급성 등에 따라 청호고가교 등 주요시설물을 순차적으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경북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경북 2050 탄소중립 비전 보고회

경북도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줄이기로 했다. 경북도는 경북여성가족플라자 대강당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도의회 의장 및 관내 유관기관장, 시민단체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2050 탄소중립 비전 보고회'를 열었다.

경북도의 '비전'은 '삶의 가치를 높이는 탄소중립, 청정기후 행복 경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중점과제와 63개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4대 중점과제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저감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 구조 대 전환 ▲녹색건축물 및 녹색교통 체계 구축 ▲산림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보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등으로 추진된다.

도는 먼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산업 구조 대 전환'을 위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으로 탈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수소연료전지 보급 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해남미남축제' 11일 개최

해남의 가을이 오색빛깔로 물들고 있다. 오는 11~13일 해남미남축제가 개최되는 가운데, 축제장인 두륜산 도립공원 일원은 국화꽃의 향연이 가득 펼쳐지고 있다.

이번 국화 전시는 축제장 전역에 총 15종, 8만 5,000여점의 국화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장 입구 공원에는 주라기월드 등 4개의 테마존을 조성, 각 테마존에는 공통 조형물과 캐릭터, 동물 등을 주제로 한 국화 작품들이 전시된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